

월간 오디오

Audio

3

기품있는 가정을 위한 잡지

THE MONTHLY JOURNAL OF AUDIO

우편번호 130-070 / 1971년 8월 2일 문화·관광부 등록 제 1495 / 1972년 11월 31일 제3종 우편물 (나)급인가 / 통권 302호
 2000년 2월 25일 인쇄 · 2000년 3월 1일 발행 / 서울특별시 용두동 732-1 / 월간 판송사 / 국유철도 특별취급승인 제131호



특 집 사진으로 본 밀레니엄 오디오

State of the Art/PATHOS 철저 분석
 매칭교실/값진 투자로 만나기 힘든 베스트 매칭
 Close-up/아캄 FMJ A22 · CD23
 스페셜 리뷰/아큐페이스 DP-55 CDP
 Audio Scoop/브리타시 사운드 킹덤 12
 AV 신제품/크리스 네오피스 5.1
 해외탐방/첼로사의 L.A. 연구소를 찾아
 매니아 탐방/적금 해약으로 AV열정 불태운 변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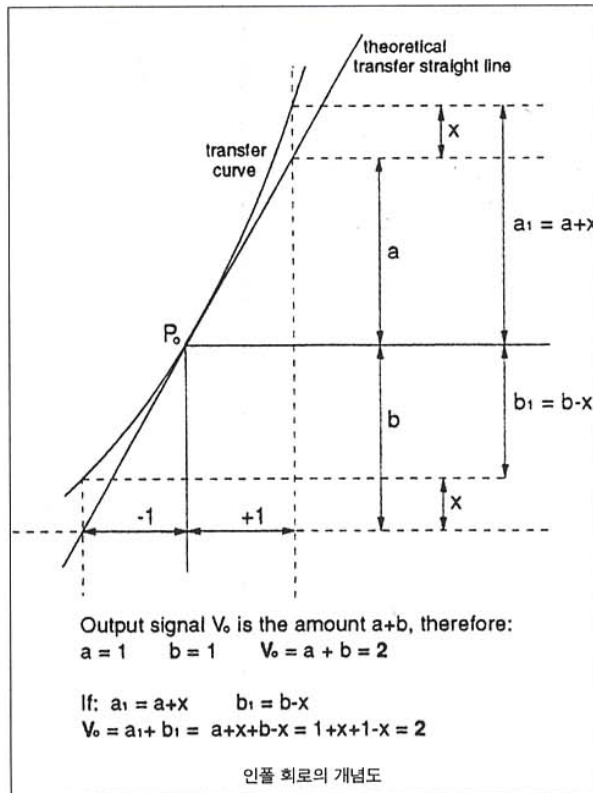
ISSN 1277-3066-03

창시절 밴드를 결성하여 연주 활동도 하고 학비도 벌고 하던 사이이다. 각자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에도 세사람은 자주 음악도 같이 하고 녹음을 하기도 하며 만나오다고 가에다노의 스튜디오에 있는 장비들의 음질에 불만이 생기게 되었고, 이미 엔지니어로 성공한 자니에게 차라리 앰프를 직접 만들어 달라고 가에다노가 부탁하게 된다.

앰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가 들던 지원해준 가에다노는 자니의 시제품을 듣고 충격을 받게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장비를 모두 처분하며 자니에게 앰프회사를 같이 차려서 이



패토스 앰프의 특징은 이탈리아적인 열정으로 디자인된 색채감이 일품으로 손꼽힌다.



소리로 세계를 정복하자고 제안한다. 결국 이렇게 해서 세사람은 패토스를 설립하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오게 되었다. 그 당시 자니는 이탈리아 음향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앰프 시연회를 가졌는데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타 앰프들에 비해서 자니의 앰프가 압도적으로 소리가 좋았다는 평은 그 이후에도 두고두고 회자되어 패토스를 단기간에 유명하게 만드는데 한 몫을 했다. 사실

첫제품 시연회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면 회사 설립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입력단은 진공관, 출력단은 솔리드 스테이트 사용

패토스는 영어의 열정(Passion)에 해당하는 고대 희랍어로서 기계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보다 예술적인 감각을 나타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사실 패토스의 앰프들을 보면 단지 오디오라기보다 열정적인 느낌을 이탈리아적으로 표현한 색채가 느껴진다. 이는 예술 디자인을 전공했다는 파올로의 감각이 나타난 것이다.

패토스하면 그들의 특허회로 인폴(INPOL) 얘기를 빼놓을 수 없다. INPOL은 간단히 말해서 입력단은 진공관을 사용하고 출력단은 솔리드 스테이트를 사용하면서도 순A급 동

State Of the Art

PATHOS

InContol PreAmp • Inpower Power Amp



하이브리드 설계의 완성 INPOL 회로

최 덕 수/본지 회장

뛰어난 예술적 감각의 디자인

패토스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앰프 메이커이다. 아름다운 도시 비첸자에 있는 이 회사는 이탈리아의 유력 오디오 전문지인 Fedelta del Suono지에 의해 95년 최고 제품상(Oscar Award)을 받으면서 화려한 신고식

을 마치고 바로 세계 무대로 진출하였다. 이 회사의 내역과 인물들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제품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회사는 세사람의 리더가 있는데 자니 보리나토는 모든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이고, 파올로 안드리올로는 디자인 담당, 가에다노는 관리 담당을 하는

인물이다.

자니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파올로는 예술 디자인을 가에다노는 경영을 전공하였다니 각각의 역할이 최적으로 분배되어있는 셈이다. 비교적 부자집(?) 아들인 가에다노는 젊었을때부터 녹음 스튜디오를 몇개 가지고 있었고, 자니와 파올로는 학



작(증폭)을 유지하는 기법이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은 가장 우수하다. 왜냐하면 패토스의 주장대로 음색은 진공관답게, 스피커 구동은 솔리드 스테이트답게 구동되면서도 순 A급 증폭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진공관은 음색이 따뜻하지만 스피드와 다이내믹의 한계가 분명하고 TR 음색은 경우에 따라 차갑지만 스피커를 구동하는 물리적인 능력만큼은 진공관에 비해 탁월하다. 진공관과 반도체의 장점을 요약한다는 것이 패토스의 아이디어이다. 또 한가지 패토스 앰프 설계의 키 포인트는 음 신호 경로를 가급적 짧고 간섭없이 설계한다는 점이다. 내부배선재는 모두 순은선을 사용한다. 볼륨 컨트롤을 위시한 부품은 말할 것도 없이 최고급의 것들을 사용하였다. 맑고 깨끗한 사운드르 보장하기 위한 조

치가 완벽하다.

이번에 소개하는 인콘트롤 프리와 인파워 파워앰프는 패토스의 인폴회로의 진수를 보여주는 간판격의 제품이다. 인콘트롤은 풀밸런스 회로에 독립된 파워서프라이드가 따로 있고, 피드백을 전혀 걸지 않은 순 A급의 리모트 콘트롤이 가능한 프리앰프이다. 소리를 얘기하기 이전에 우선 이 앰프는 너무나 아름답다. 가만히 들여다 보고 있으면 복잡하지도 않으면서도 심플하게 어찌면 이렇게 우아한 모습이 있을까 감탄하

게 된다. 인파워 파워 앰프도 역시 입력단에서 출력단까지 풀 밸런스 회로이며 순 A급 동작의 인폴회로가 더블로 장착되어 피드백을 전혀 걸지 않은 상태에서 8Ω에서 80W씩의 채널당 출력을 보장한다. 사실 앰프는 피드백을 거는 기법으로 설계하면 출력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그럴 경우 예외없이 오렌시청을 하면 귀가 피곤해지는 사운드가 나온다. 인파워는 피드백 전혀 걸지 않



인폴헤로를 설명하는 자니보리나트.

고 게다가 피크 출력까지 순 A급 동작을 하는 회로설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범한 설계의 파워앰프의 몇백와트가 넘는 대출력이다.

상식을 깬 회로 설계 방식 채택

인폴 즉 진공관 입력단에 반도체 출력단, 순A급 증폭방식, 제로 피드백, 깔끔한 신호경로, 순은선 배선, 최고급 부품 선정. 이런 것들이 이 앰프의 장점들이다. 패토스의 카달로그에는 'The Unorthodox Approach' 라는 표현이 강조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상식을 깨는 설계방식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리고 이 표현이야말로 패토스의 설계방식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이다. 순 A급 동작을 하는 앰프이기 때문에 이 앰프는 방열량이 꽤 많다. 그래서 앰프를 들고 얼마지나면 방열판이 무척 뜨거워진다. 아무튼 이 앰프는 이미 시청을 하기 전부터 사람을 약간 흥분시키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이다.

진공관 사운드는 간혹 모호한 경우가 있다. 반도체 사운드는 간혹 모가 나고 청취피로를 수반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반도체가 정확한 소자이기 때문이겠지만.

주로 재즈 음반을 이것저것 들으면 서 이 앰프의 성격에 빠져들어 갔다. 소리가 충만하고 공간감이 있어 완벽하게 실제 상황을 연상케 한다. 드럼이 잘 정리된 공간을 점유하고 각 악기간 거리가 현장감있게 재생된다. 아주 부드러운 순간에도 즉 어떤 악기가 보조역할을 담당할 때라도 공간적 배치가 매우 정확하고 식별 가능하다. 교향악단의 경우에도 베이스 튜바와 같은 악기들도 완벽하게 들리고(음 재현에서 항상 흔한 것은 아니다) 바이올린은 윤기있는 터치를 지나 또한 귀에 거슬리지 않으면서 예리한 아주 미묘한 여운을 지닌다. 가수의 입모습이 크네 작네, 소리가 말랐네 뚱뚱하네를 얘기할 필요없이 인위적이지 않고 감탄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소리이다. 앰

프가 표현하는 소리의 경향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때때로 여러 형용사로 표현하지만 이 앰프는 단지 극도로 투명하고 자연스러울 뿐이다. 한마디로 투명한 공간의 자연스러운 방출이다. 볼륨을 최대한 올려서 여러 시간을 들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탄탄한 구동력을 가지고 있어 스피커를 압도한다.

회로가 우수하고 소리 역시 뛰어나지만 이 앰프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그 차원을 넘는 매력이 있다. 무언가 열정적인 사람들이 창조해 낸 감성이 묻어나는 어떤 느낌을 준다. 이것은 단지 앰프가 빼어난 몸매(?)를 가지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요란하지도 않으면서 예술적인 바디 디자인. 아마도 한 눈에 반한 여인임에도 오랫동안 질리지 않는 그런 여인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것이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태에 사운드는 그토록 원숙했다. 상식을 뒤집는 회로 설계 방식, 눈부신 몸매, 그리고 느껴지는 열정에 박수를 보낸다. **Audio**